

미국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 Industry Trend of USA

20

20



미국 콘텐츠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USA

2020년 02호

구분(장르)	제 목	Key Word
심층이슈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이 갖는 의의 2020년 2월 9일, 미국 할리우드에서 개최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영화 <기생충>(봉준호 연출, 2019년 개봉)이 국제장편영화상, 각본상, 작품상, 감독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룸. 한국영화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에 개봉한 영화로서 여러 해외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다수 수상하여 의미 있는 시기에 의미있는 수상이라고 해석됨. <기생충>의 아카데미 4개 부문 수상은 전 세계 영화계, 특히 해외영화에 배타적인 미국에서 받았다는 점에서 미국 영화시장과 관객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읽을 수 있음. 앞으로 자막을 함께 읽어야 하는 비영어권 국가의 영화들이 시장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본 동향은 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국제장편영화상, 각본상, 작품상, 감독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한 한국영화 <기생충>의 수상에 따른 변화를 전망함	영화 <기생충>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비즈니스센터

배포 | 2020.02.14



심층이슈

KOCCA

1.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이 갖는 의의

작성순서

1. 영화 <기생충>
2. 영화 <기생충> 수상 이력
 - 1) 주요 시상식 수상 이력
3.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작품상, 감독상 수상에 관한 반응
 - 1) 할리우드 스타들의 축하와 지지
 - 2) 미디어의 비호적 반응
4. 오스카 수상으로 기대하는 미국 영화시장의 전망
 - 1)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외국어 영화의 증가
 - 2) 자막을 받아들이는 미국 영화시장의 변화
 - 3) 영화 <기생충> 오스카 수상 그 이후
 - 4) 제2의 <기생충> 탄생 가능성
5. 정리 및 시사점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KOCCA

1 영화 <기생충>

>>>

- 2019년 5월 30일 개봉한 한국 영화 <기생충>은 개봉 직전 2019년 5월 12일 제 72 회 칸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함
- 가족 전원이 백수인 가난한 주인공 가족이 부잣집에 모두 취업하면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 빈부격차, 소외, 고립, 불안과 같은 요소를 드러내면서 현대사회가 가진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낸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임
- 영화의 장르를 놓고 '블랙코미디 서스펜스'라고 소개되는데, 단일 장르가 아닌 복합적인 장르를 통한 스토리텔링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보이는 공통점임
- 영화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의 7 번째 장편영화로, 한진원 작가와 공동각본을 씀
-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장혜진, 이정은, 최우식, 박소담, 박명훈 등이 주요 캐스트로 출연함
- 바른손이앤아이의 대표 광신애 프로듀서가 2015년 4월 <데칼코마니>라는 제목의 짧은 트리트먼트를 받으면서 2017년 시나리오 작업이 시작됐고, 2018년 5월 촬영을 시작하면서 약 4개월 뒤인 9월에 마쳤음. 2019년 완성된 영화는 칸 국제영화제 공식경쟁 부문에 초청됐고, 2019년 5월 21일 칸에 위치한 루미에르 극장에서 월드프리미어(전세계 최초 상영)됨



그림 1 | 영화 <기생충> 연교역을 맡은 배우 조여정 (출처: www.google.com)

- 한국 내 배급은 CJ 엔터테인먼트가 담당했으며, 해외 배급은 네온(Neon)이 2018년 아메리칸필름마켓을 통해서 영화에 대한 북미권 배급권을 취득하여 배급함. 북미권 배급뿐 아니라 독일어권, 프랑스어 권역, 일본에도 배급권이 사전에 판매됐음
- 영화 <기생충>을 미국에 배급한 네온은 <스크린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봉준호 감독의 전작 중 미국에서 제작된 <설국열차>(2013년 4600만 달러 수입)가 미국에서 개봉했던 전작들 <괴물>(2200만 달러 수입), <마더>(55만 달러 수입)와 비교해 크게 관심을 받았으며 <넷플릭스>를 통해 제작/배급된 <옥자> 등으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팬들이 많이 있어 영화 <기생충>이 박스오피스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고 말함.¹⁾
- 미국에서 해시태그 #Bonghive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스스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표시하기 시작했으며, 아카데미 시상식 근처에 이르러 상당히 많은 수의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보여짐
- 영화 <기생충>은 전 세계에서 2020년 2월 13일 기준 1억 6,739만 달러의 해외수입을 기록해 역사상 해외수입이 가장 높은 한국영화가 됐음
- 아카데미 시상식 직후인 2월 10일 50만 1,222달러 극장 수입을 올려, 데일리 흥행순위 4위로 뛰어오르는 오스카 특수를 누렸음. 2019년 10월 미국에서 개봉한 뒤 5위 안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며, 전주 같은 요일 대비 213.3% 증가한 수입임
-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 기준, <기생충>은 한국영화 흥행순위 16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봉준호 감독의 전작 중에 <괴물>이 14위에 랭크됨. 1위는 <명량>, 2위는 <극한직업>, 3위는 <신과 함께: 죄와 벌>이 순서대로 랭크됨. 1위부터 3위는 해외영화 개봉작을

1) <https://www.screendaily.com/news/how-parasite-became-the-highest-grossing-foreign-language-palme-dor-winner-in-the-us/5144850.article>

포함한 전체 순위와도 동일함

2 영화 <기생충> 수상 이력



1. 주요 시상식 수상 이력

- 영화 <기생충>은 2019년 5월 12일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2013년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이래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최초의 한국 영화임
- 제77회 골든글로브에서는 작품상, 감독상, 외국어영화상 3개 부문에 후보 선정되면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음. 그러나 한국 영화 최초 수상이었던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관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문에서 수상하지 못함. 골든글로브 수상 결과가 아카데미 시상식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되기 때문에 미디어는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요부문 수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음
- 그러나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1인치도 안 되는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은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막과 외국어에 대해 배타적인 영어권 국가의 영화시장에 던지는 묵직한 수상 소감이 큰 화제가 되었음
- 미국 배우조합상(SAG Awards)에서 캐스팅 앙상블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은 비영어권 영화 중 두 번째 후보지명으로, 1997년 이탈리아 영화<인생은 아름다워>가 캐스팅 앙상블상에 비영어권 영화에서 첫 후보로 지명된 바 있었음
- 영화 <기생충>은 제73회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BAFTA)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과 외국어영화상 4개 부문에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그 중 각본상과 외국어 영화상 수상함.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작품상 후보에 오른 최초 한국 영화임
-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외국어영화상이 92회부터 국제장편영화상으로 명칭 변경됨), 편집상, 미술상 등 6개 부문에 후보 지명됐으며,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 결과 작품상, 국제장편영화상, 감독상, 각본상 4개 부문에서 수상함. 아카데미 역대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의 비영어권 영화이며, 국제장편영화상 부문 최종후보에 진출한 최초의 한국 영화였으며, 최초로 국제장편영화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가 됨
- 영화 <기생충>은 미국의 많은 비평가가 2019년 말 Top 10 리스트에 빠뜨리지 않고 언급한 영화로 각 목록의 1위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미국 내에서 비평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 그러나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상”으로 정평이 난 아카데미상 수상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음
- 이외에도 할리우드 영화 비평가 협회(각본상, 외국어 영화상, 감독업적상), 할리우드 영화제(감독상), 아프리카계 미국인 영화 비평가 협회(각본상, 외국어영화상), 여성 영화기자 협회(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영화상), AFI 어워드(특별상), 미술감독협회상(동시대 부문 장편 영화상), 아시아태평양스크린어워드(작품상), 오스틴 영화 비평가 협회(작품상, 10대영화상,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영화상), 보스턴 영화 비평가 협회(감독상, 외국어영화상), 시카고 영화 비평가 협회(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영화상), 콜럼버스 영화 비평가

협회(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영화상), 크리티크스 초이스 영화상(감독상, 외국어영화상), 델러스-포트워스 영화 비평가협회(외국어영화상), 덴버 영화 비평가 협회(외국어 영화상), 디트로이트 영화 비평가 협회(작품상), 디렉터스컷 어워즈(감독상, 남자배우상, 각본상, 신인 남자배우상), 도리안 어워즈(영화상, 감독상, 남우조연상, 외국어영화상, 각본상), 조지아 영화 비평가 협회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 하와이 영화 비평가 협회(미술상), 휴스턴 영화 비평가 협회(작품상, 감독상, 외국어영화상),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해외작품상), 인디애나 영화 비평가 협회(감독상, 외국어영화상), 인디와이어 크리티크스 풀(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영화상), 라스베이거스 영화 비평가 협회 작품상), 로스앤젤레스 영화 비평가 협회(작품상, 감독상, 남우조연상), 전미비평가 위원회(외국어영화상), 전미 비평가 협회(작품상, 각본상), 뉴욕 영화 비평가 협회(Top10 영화상,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 미국 내 다양한 영화 산업 내 협회들이 선정한 2019년 수상 목록에 들었음

3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작품상, 감독상 수상에 관한 반응



1. 할리우드 스타들의 축하와 지지

- 오스카 시상식과 함께 인스타그램, 트위터는 <기생충>의 팬, 한국영화팬 뿐 아니라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아시아계 미국인 배우들의 축하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포스팅됨
- 산드라 오 배우는 “한국인이어서 자랑스럽다”고 트위터에 포스팅했으며, 오스카 최종후보 발표에서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봉준호 감독과 곽신애 프로듀서를 호명해 화제가 됐던 존 조 배우는 “<기생충>의 캐스트와 함께 서서 축하를 많이 받았다”고 유머러스한 트윗을 포스팅했으며,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으로 할리우드에 새로운 물결을 소개했던 존 추 감독은 과장스럽게 기쁨을 표현했음
- 이 외에도 인도계 배우인 쿠마일 난지아니는 “내가 올리는 단 하나의 오스카 트윗”이라며 “<기생충> 수상에 행복하다”고 적었고, 역시 인도 출신의 프리얀카 초프라 배우는 “<기생충> 같은 국제영화, 한국어로 만들어지고 영어로 자막이 달린 영화가 전세계에서 환영 받고, 영화산업에서 가장 영예로운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것을 보니 감동적이다”라며 “경계와 언어를 넘어서는 창작물”에 대한 경의를 표했음²⁾
-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에이버 두버네이 감독은 <LA 타임즈>의 영화평론가인 저스틴 창이 <기생충>의 작품상 수상전에 올린 “<기생충>은 작품상을 받아 마땅하다. 지금에 와서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물론 아카데미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올린 트윗을 리트윗했음

2) <https://cnalifestyle.channelnewsasia.com/trending/parasite-oscars-best-film-bong-joon-ho-celebrity-reactions-12417536>



|그림 2,3,4|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에 대한 할리우드 배우들의 트위터 반응
(출처: www.cnalifestyle.com)

- <타임>에서는 영화 <기생충>의 작품상 수상이 가능했던 이유를 할리우드에서 일어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기사를 발표함. 지난 10년 동안 할리우드는 제한개봉작, 영화제상영작 수준의 니치마켓이 아닌 대중성 있는 해외영화의 수입을 시작했으며, 아카데미상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데모그래피가 종전과 비교해 상당히 다양해졌고,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 스트리밍 서비스로 확장된 콘텐츠 아카이브에 관객들이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정리함³⁾
- 미국 평론가나 기자들의 반응이 오스카 시상식 날짜가 가까워짐에 따라 분명해졌다면, 미국 내 외신기자들의 영화 <기생충>에 대한 호평은 2019년 여름부터 들려왔음. 이 시기는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뒤, 본격적으로 해외시장과 아카데미시상식을 겨냥한 마케팅을 시작했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번 오스카 주요부문 수상을 예상할 수 있는 일말의 근거가 되었음

1. 미디어의 비호적 반응

- 그러나 모두가 <기생충>의 주요부문 수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영화산업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됨. 특히 쿠엔틴 타란티노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와 샘 멘데즈 감독의 <1917>이 수상을 실패한 데 대한 아쉬움이 나타남
- <블레이즈 TV>의 쇼호스트 존 밀러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각본상을 받으려 무대에 올라 "Great Honor, Thank you" 이후에 한국어로 수상소감을 말한 것을 놓고 "봉준호라는 이름의 남자가"로 시작하는 불평의 트윗을 게재.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산업의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1917>(샘 멘데즈 감독)과 같이 미국을 다룬 이야기를 제치고 수상한 것에 대한 반감을 드러냄.⁴⁾



그림 5] 화제가 된 쇼호스트 Jon Millier 트위터 (출처: www.nytimes.com)

3) <https://time.com/5779940/parasite-best-picture-oscars/>

4) <https://www.nytimes.com/2020/02/10/opinion/parasite-oscar-best-picture.html>

- 〈뉴욕타임즈〉의 영화평론가인 월터 차우는 중국계 이민자로서 “브루스 리를 아냐”는 질문을 매번 들어야 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영화 〈기생충〉의 수상은 축하할만한 일이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위상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새로운 “〈기생충〉을 아느냐”는 물이해가 이어질 것을 예상함⁵⁾
-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 트로피 개수는 4 개가 아니라 3 개”라며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 작품상, 국제장편영화상, 각본상까지 오스카 시상식에서 4 회 무대에 올라 수상한 기록을 두고 〈LA 타임즈〉는 “한 가지 상은 영화감독 개인이 아닌 국가에 주어지는 상”이라며 꼼꼼히 오스카 규정과 오스카 수상기록에 대해 밝히는 기사를 게재함⁶⁾



그림 6 | 오스카 시상식 수상소감 후 봉준호 감독 (출처: www.nytimes.com)

- 〈LA 타임즈〉는 아카데미 규칙 13.D.3 을 근거로 “국제장편영화상의 아카데미 트로피(오스카)는 영화에 주어지며, 감독이 창의성을 대표해 대리 수상하지만, 트로피에 새겨지는 순서는 국가명, 영화명, 영화감독”이라며 봉준호 감독이 수상한 트로피는 3 개라고 밝힘
- 또한 이 같은 〈LA 타임즈〉의 정의에 아카데미 역시 봉준호 감독이 수상한 트로피는 3 개라고 확인함. 국제장편영화상의 수상자는 “대한민국”이라고 함
- 봉준호 감독은 이날 제임스 L 브룩스, 제임스 카메론, 코언 형제, 프랜시스 모드 코폴라,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피터 잭슨/프란 월시, 빌리 와일더와 함께 오스카 시상식 1 회에 3 개 트로피를 받은 9 명 중 한명이라는 기록으로 등재됨
- 9 명 리스트에 외국 출신 감독이 3 명(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피터 잭슨, 봉준호)이라는 사실은 할리우드가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방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함
- 현재까지 동일한 오스카 시상식에서 가장 많은 트로피를 받은 개인은 월트 디즈니로, 1954 년 시상식에서 단편만화상, 다큐멘터리상, 단편다큐멘터리상, 단편실사영화상 등 4 개 부문을 수상함

5) <https://www.nytimes.com/2020/02/10/opinion/parasite-oscar-best-picture.html>

6) <https://www.latimes.com/entertainment-arts/movies/story/2020-02-10/oscars-bong-joon-ho-parasite-wins>

- 〈인디와이어〉는 할리우드는 아웃사이드를 환영하는 개방적인 산업이라고 말하며, 2010년부터 지금까지 감독상을 받은 9명은 해외 출신이었다고 지적함. 또한 국제장편영화상을 받은 영화가 작품상까지 받는다면 국제장편영화상을 수상하고 축하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꼬집었음⁷⁾
- 〈슬레이트매거진〉은 봉준호 감독이 한진원 작가와 함께 수상한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소감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첫 수상이다”라고 말한 대목을 근거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한국 전체를 대표하지 않음을 분명히 선 그었지만, 그럼에도 〈기생충〉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작품상을 포함한 4개 부문을 수상한 소식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특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미디어가 어떻게 이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지 중점을 둔 기사를 게재함⁸⁾
- 〈LA 타임즈〉⁹⁾와 〈버즈피드뉴스〉¹⁰⁾ 등 여러 미디어는 “〈기생충〉이 오스카를 받고 싶은 것보다, 오스카가 〈기생충〉에게 더욱 트로피를 주고 싶어 했다”는 주제로 칼럼을 게시함. 이는 #OscarSoWhite 등 여러 해에 걸쳐 지적된 후보 선정 및 수상작/수상자 선정에서의 다양성(Variety) 이슈에 대한 해법으로 〈기생충〉에게 상을 주었다고 보는 시각임
- 특히 〈슬레이트매거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트윗을 언급함



문재인 
@moonriver365

우리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등 4관왕 수상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봉준호 감독님과 배우, 스태프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자부심과 용기를 주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기생충'은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개성 있고 디테일한 연출과 촌철살인의 대사, 각본, 편집, 음악, 미술을 비롯해 배우들의 연기까지 그 역량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지난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에 이은 '아카데미 4관왕'은 지난 100년 우리 영화를 만들어온 모든 분들의 노력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한국영화가 세계영화와 어깨를 견주며 새로운 한국영화 100년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기생충'은 유쾌하면서 슬프고, 사회적 메시지의 면에서도 새롭고 훌륭하며 성공적입니다. 영화 한 편이 주는 감동과 힘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영화인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펴고 걱정 없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배우와 스태프 여러분의 '다음 계획'이 벌써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하며, 국민과 함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후 3:29 · 2020년 2월 10일 · Twitter Web App

[그림 기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출처: www.twitter.com)]

- 영화 〈기생충〉의 수상은 한국 소셜미디어에서 그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는데, 〈슬레이트매거진〉은 오스카 시상식이 열린 일요일 밤 한국 트위터에서 ‘#미국놈들’이라는

7) <https://www.indiewire.com/2020/02/oscars-2020-parasite-foreign-filmmakers-1202210455/>

8) <https://slate.com/culture/2020/02/parasite-oscar-bong-joon-ho-south-korean-media-reaction.html>

9) <https://www.latimes.com/entertainment-arts/movies/story/2020-01-30/oscar-parasite-best-picture>

10) <https://www.buzzfeednews.com/article/michaelblackmon/oscar-parasite-bong-joon-ho-oscar-so-white>

해시태그가 트렌딩으로 떠오르기도 했다고 언급하며 “같은 단어를 북한이 사용할 때와는 다른 우호적인 의미”라고 설명을 덧붙였음¹¹⁾

- 투자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한 이미경 CJ 엔터테인먼트앤미디어(CJ E&M) 부회장이 투자자는 의례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오스카 시상식에 ‘책임프로듀서’라는 직책을 달고 참석해 수상소감을 말한 것에 대한 한국 언론의 부정적인 리뷰도 소개함¹²⁾¹³⁾

4 오스카 수상으로 기대하는 미국 영화시장의 전망



1.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외국어 영화의 증가

-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으면서 골든글로브의 외국어영화상 수상당시 봉준호 감독의 “1 인치 장벽” 수상소감이 다시금 회자됐는데, <뉴욕타임즈>는 비영어권 영화의 오스카 주요상 수상이 앞으로 미국을 포함한 영어권 국가에서 해외영화들이 마케팅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함. 이를테면 “Parasite meets...”로 부연되는 여러 장르의 영화들이 만들어질 것이며, 그 영화들은 <기생충>을 마케팅을 위한 전력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¹⁴⁾



[그림 8]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 (출처: www.dazeddigital.com)

- 외국어 영화, 해외영화에 배타적인 할리우드라고 하지만, 영화 <기생충> 전에도 할리우드가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던 자막이 필요한 영화들이 없었던 것은 아님. 대표적으로 제 91 회 오스카 시상식에서 작품상은 받지 못했지만, 감독상과 촬영상,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로마>를 꼽을 수 있음. 물론 북미 지역에 히스패닉 인종의 거주 비율이 높은 점을 외면할 수 없음
- 이외에도 <판의 미로>(2006 년, 멕시코), <아멜리에>(2001 년, 프랑스), <와호장룡>(2000 년,

11) <https://slate.com/culture/2020/02/parasite-oscars-bong-joon-ho-south-korean-media-reaction.html>

12) <https://www.hankookillbo.com/News/Read/202002101516324268>

13)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27859.html

14) <https://www.nytimes.com/2020/02/12/movies/movies-subtitles-parasite.html?auth=login-google>

중국) 등 해외 영화가 미국 영화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는 종종 있었음

- 또한 따로 언급하고 있는 기사는 없었으나, 한국인의 이름을 First name, Last name 순서가 아닌 한국에서 표기하는 대로 Bong Joon Ho 로 표기하고 출연진 및 스태프들의 이름을 한국 순서대로 표기하는 등 외국 문화에 대해 존중하려는 태도가 전반적으로 돋보였음

2. 자막을 받아들이는 미국 영화시장의 변화



[그림 9] 전 세계 영화 <기생충> 포스터 (출처: www.joongang. Joins.com)

- <뉴욕타임즈>는 또 미국 관객이 자막에 대해 가지는 편견이 지난 10년간 많이 바뀌었다고 언급함.¹⁵⁾ 이는 미국이 10년 전과 비교하면 외국어 영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로 바뀌었음을 시사함
- 지난 10년 동안 방송/영화계에서 일어난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보편화”는 외국어로 제작된 콘텐츠를 미국(영어권) 관객이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했으며,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2016년 TV로 방송된 콘텐츠 중에서 캡션이 제공되는 콘텐츠는 온라인, 스트리밍 등의 다른 플랫폼에서도 캡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을 변경하면서 자막/캡션에 대해 시청자와 관객들은 좀 더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게 됨
-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영화 역사를 연구하는 캐롤 오설리반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막이 있는 외국어 영화가 시장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으로, 자막을 읽는 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영화팬들과 이민자 커뮤니티가 기반이 되어 니치마켓을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함
- <타임>에서는 할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재닛 양 프로듀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할리우드가 외국어 영화를 마케팅 하는 방식이 많이 변화됐음을 설명함. 특히 할리우드는 과거에 외국어 영화를 이민자 커뮤니티를 겨냥해 수입했었음¹⁶⁾

15) <https://www.nytimes.com/2020/02/12/movies/movies-subtitles-parasite.html?auth=login-google>

16) <https://time.com/5779940/parasite-best-picture-oscar/>

- 극장 체인 AMC는 10년 전부터 자막이 있는 외국어 영화를 특별 편성하기 위한 팀을 구성했으며 실제로 외국어영화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극장으로서 이를 통한 수입이 발생했다고 함

3. 영화 <기생충>, 오스카 수상 그 이후

- 봉준호 감독은 TV 시리즈 <Succession>과 영화 <빅쇼츠>를 만든 애덤 맥케이 감독과 <기생충>을 기반으로 한 HBO TV 시리즈의 초기 개발 단계에 있다고 발표함.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에 기반한 이 시리즈가 “영화의 시퀀스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릴 것이라고 말했음. 공식적인 타이틀, 캐스트에 대해 확인된 바는 없으나, 6편 정도의 미니시리즈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HBO가 확인함. 봉준호 감독은 이에 대해 6시간 길이의 <기생충>을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답함¹⁷⁾
- 영화의 북미 배급을 맡은 네온은 현재 1,060개인 상영관 수를 주말(2월 14일 이후)까지 2,000개 이상으로 늘일 예정으로 발표했음
- 북미권 외에도 영국, 이탈리아, 베트남, 터키 등에서 상영관을 늘리거나 재상영을 결정하는 등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 결과로 박스오피스 수입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 한국은 K-Pop, K-Drama에 이어 K-Film으로도 콘텐츠 수출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커짐

4. 제2의 <기생충> 탄생 가능성

- <기생충>의 오스카 주요 부문 수상 및 각종 해외 영화상/시상식의 수상으로 제2의 <기생충>이 탄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음
- 가장 기본적으로는 보편성 안에서 특수성을 갖춘 대중적인 영화가 만들어져야 하며, 국내외 관객을 통해 작품에 대한 검증이 되어야 함.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흥행한 영화, 해외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라고 할지라도 아카데미의 취향에 맞는 영화여야 함.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2020년 국제장편영화상으로 수상부문명 변경) 최종 후보로 선정되지 못했음
- <기생충>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받는 이유로 많이 꼽히는 이유는 “동시대성”인데, 한국에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인 동시에 전 세계의 현실을 드러내기 때문임. 한국적인 정서, 한국적인 문화를 드러내는 애국주의적 성향의 영화보다는 해외 관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성이 기저에 있는 영화를 출품할 수 있도록 선정기관의 연구가 요구됨
- 2013년 <뉴욕타임즈>가 최종 후보에 선정되지 못한 외국어영화상 출품작 감독들과 인터뷰를 통해 게재했던 기사에 따르면, 1)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출품되는 것은 미국에서보다 자국에서 더욱 홍보효과가 크며, 2) 출품한 뒤 <버라이어티> <할리우드리포터> 같은 산업지에 광고를 1회 정도 내고 아카데미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사회(감독과의 대화 등 부가 행사

17) <https://www.thewrap.com/bong-joon-ho-parasite-hbo-limited-series/>

포함)를 1회 정도 진행하는데 드는 예산이 2013년 기준 5만 달러 정도임. 할리우드 내부에서는 이 예산 규모에 대해 적당하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1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지만 결코 충분하지는 않다고 답함. 또한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오스카 캠페인에 1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감독 개인의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의미가 있다”라고 답함¹⁸⁾

- 따라서 제 2의 <기생충>의 탄생 가능성을 전망할 때, 겨냥하는 부문이 국제장편영화상인지 아니면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 등 주요부문의 상인지가 앞으로 해외 영화제 출품작들이 홍보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됨,
- 이른바 ‘오스카 레이스’라는 오스카 캠페인이 8천 명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주요 부문의 수상을 목표로 한다면 대기업 수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하지만 국제장편영화상 또는 다큐멘터리상 같은 경우는 다르다고 함. 따라서 어떤 부문을 목표로 캠페인을 하는지가 예산을 결정하는 요인이 됨
- 같은 맥락에서 CJ E&M의 이미경 부회장이 수상소감에서 이재현 회장을 언급한 데는 <기생충>의 오스카 레이스에 투입된 비용이 국제장편영화상 후보작에 들어가는 비용과 규모부터가 달랐으며 이를 위해서는 재벌 총수의 승인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음
- 그렇기에 제 2의 <기생충>이 될 수 있는 한국영화가 있다면 국가적, 기업적 수준의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뉴욕타임즈>가 만났던 외국어영화상 카테고리 출품 감독들도 각 국가의 문화기관에서 전체 예산의 일부를 받았다고 밝혔음. 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위의 사례에서도 공공기관의 지원 규모는 크지 않았음
- 그렇다면 ‘제 2의 <기생충>을 얼마나 빨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하는 질문이 남는데, 국제장편영화상 부문의 경우 최종 후보 5편에 들기 이전에 약 100여 개 국가가 경쟁, 예비후보 10편에 든 뒤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또한 오스카가 <기생충>을 선택함으로써 보여준 변화에 “다양성”이 중심에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스카 시상식을 통해 미국과 세계에 소개될 것으로 예상됨. 한국영화가 다시 한 번 상을 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
- 그럼에도 오스카라는 조직은 심사위원 몇 명이 의견을 교환하여 수상작을 선정하는 영화제가 아니며 약 8천 명의 회원들이 각자 원하는 영화에 투표를 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그 투표 결과에 대한 세부정보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트렌드와 캠페인에 따라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특히 2019년 약 90명의 신입회원이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정됐는데 기존과 달리 유색인종, 여성, 외국인이 다수 포함됐었던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아카데미 수상 방향은 종전의 “안전하고 보수적인” 선정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임
-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수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지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상식인 아카데미 시상식에 후보로 지명될 수 있도록 출품작에 일정 부분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의미

18) <https://www.nytimes.com/2013/12/29/movies/awardsseason/foreign-filmmakers-and-the-oscar-race.html>

있다고 판단됨.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아카데미 시상식은 달라지고 있으며 세계 영화 산업의 플랫폼도 변화하고 있음. 또 가장 크게는 세계 관객의 취향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를 홍보하고 한국 콘텐츠를 알릴 수 있는 통로라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4

정리 및 시사점



- 한국 영화 <기생충>이 제 92 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 작품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4 개 부문을 수상했음
-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감독상 수상소감에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에게 경의를 표하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로 전 세계인의 보편적 공감대를 얻어낸 영화에게 주어진 합당한 결과라고 평가됨
- 보수적이고 안전한 수상 결과로 정평이 난 아카데미상이었기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으며, 이를 두고 많은 의견, 호불호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표현되고 있음
- 미국 영화산업의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가 최고상을 받은 사실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며, 아카데미상이 <기생충>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해서 미국의 편향성, 다양성의 부재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보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이 있음
- 그래서 이번 수상 결과를 두고 다양성 부족으로 지적받는 아카데미에 더욱 필요한 수상 결과였다는 평가도 있으나, 그럼에도 <기생충>이 주요 부문에서 여러 개의 트로피를 수상했다는 것은 아카데미의 변화와 변화의 방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됨
- 또한 <기생충> 이후 미국 영화산업이 해외 영화, 외국어 영화, 자막이 있는 영화에 얼마나 개방적으로 나아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각 분야는 독립적인 산업 분야가 아니라 IT, AI 등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연결 및 확장이 가능한 영역으로 다양한 발전이 기대됨
- 앞으로 미국 시장을 겨냥해 만들어지는 영화들에는 “포스트 <기생충>”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영화 <기생충>은 오스카 수상 특수로 전 세계 박스오피스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봉준호 감독은 HBO 와 <기생충>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이야기를 미니 TV 시리즈로 제작할 계획으로, 현재 초기 개발 단계에 있음. 방영일, 캐스팅, 제목 등 모두 미정임
- 한국 영화 최초의 오스카 레이스 참여로 국익적인 시점에서 한국의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높았기에 제 2 의 <기생충>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으며,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해외 시상식 수상 이전에 좋은 작품이 만들어져야 하고, 출품 이전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출품할 경우 수상을 목표로 하는 수상 부문과 그에 대한 분석이 예산 책정과 외부 지원에 있어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됨
- 아카데미는 변화하는 방향성을 보여주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경쟁이 예상됨

미국 비즈니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주성호 센터장	+1-323-935-5001	thinkju@kocca.kr
엘리홍 과장	+1-323-935-5001	ehong@kocca.kr
권순형 주임	+1-323-935-5001	gavin@kocca.kr

발행인 김영준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www.kocca.kr